

각당 마지막 한표 호소



정동영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 날인 18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대 대선 관전 포인트

17대 대통령 선거전이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혔던 BBK 추가 조작 사건과 완화된 지역구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① BBK 동영상 파급력?

지난 5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와 BBK가 무관하다는 '전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BBK 변수는 선거무대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2000년 10월 광운대 강연에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육성으로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동영상의 전격 공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함으로써 BBK사건은 살아있는 변수로서 대선관에 복귀했다. 육성 동영상에 갖는 파급력으로 인해 이 후보의 지지율 하락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부동층이 증가하는 등 바닥 표심이 술렁이고 있다.

BBK 동영상에 실제 투표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후보별로 분석이 엇갈린다. 정동영 이회창 후보측은 "이명박 후보가 침묵하고 있다"며 대역전을 자신한 반면, 이명박 후보측은 "정권교체라는 도도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② 수도권 30~40대 표심?

이번 대선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이전 대선에 비해 현저히 완화됐다는 점이다.

호남에서 정동영 후보가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던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10%대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고, 영남은 이명박 후보가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분점하고 있다.

결국 전라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충청이며,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유권자층은 수도권의 30, 40대이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한 계층이고 이명박 후보의 '경제 대통령론'에 적극 호응을 보낸 유권자들이면서도, 동시에 이 후보의 BBK 육성 동영상에 공개된 이후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각당의 자체 조사에서 나타났다.

③ 투표율 60% 넘을까

17대 대선은 '여론조사 선거'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지지율 수치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선거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년여 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했고, 경쟁 후보 진영의 비리 의혹 공세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큰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 가운데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5년 전의 70.8%보다 하락해 60%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적 막판 뒤집기” “압도적 득표 확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각 정당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18일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 각 정당들은 이날 선대위 회의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막판 유세를 통해 지지표 결집 및 사상 최초로 예상되는 투표를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소문'을 통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사필귀정의 선거혁명을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자”고 호소했다. 광주선대위는 이날 광주 북구청과 광주공원 앞 거리유세에 이어 밤 10시30분 옛 전남도청 앞까지 펼친 ‘촛불행진 유세’를 끝으로 22일간의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이번 대선을 ‘무늬만 보수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정통보수’의 적자인 이회창 후보간 보수세력의 진검승부로 규정된 뒤 “이회창 후보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이번 대선에서 마련해달라”며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자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민노당의 정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사필귀정 선거혁명 이뤄달라”

투표율 높이기 당력 집중

“부동층 지지 승기 잡았다”

“대안후보로 선택해 달라”

◇대통합민주신당=이른바 ‘이명박 특검’ 등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동영 후보 지지를 통한 막판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정대철 공동선대위원장은 “(BBK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이명박 후보는 당선돼도 무효”라며 “정동영 후보를 찍어 대선을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정동영 후보를 뽑는 것만이 나라의 장래와 안위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제 재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막판 BBK 관련 공세 등으로 출렁이는 표심을 다잡기 위해 안정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50%의 절대적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투표율을 높이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중당=무능한 진보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부패한 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사이에서 이인제 후보를 대안후보로 선택해달라 호소했다. 김경재 공동 선대위원장은 “두 번이나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며 “이인제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는 절대 사표가 아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무능한 진보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부패한 보수세력인 한나라당 사이에서 이인제 후보를 대안후보로 선택해달라 호소했다. 김경재 공동 선대위원장은 “두 번이나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며 “이인제 후보에게 보내는 지지는 절대 사표가 아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형일 광주 상임선대위원장과 신중식 전남공동 선대위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선대위원장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시·도민에게 드리는 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국민들이 총괄기해 이명박 후보를 지켜줄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나라를 망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고 50%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일꾼 이명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석홍·이균범 한나라당 전남선대위원장과 박재순 총괄본부장 등도 이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처럼 경제성장률과 국민통합을 이뤄낼 이명박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선대본부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참여 정부의 황태자로 경제를 파탄낸 정동영 후보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부패·무능 세력 심판을 강조하며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표방한 문국현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김갑수 대변인은 “위장된 진실과 위조된 사실이 속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다수 국민이 동의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투자 해달라”

“부패·무능 세력 심판하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고지인 서울지역을 돌며 막판 대역전승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서울 유세에서 대세는 이미 결정됐으며 과반 지지를 호소했다.

鄭 “오차 범위 추격...10만표차 승리”
李 “최종 여론조사 15~20%차 압승”

정동영 후보 측은 이날 BBK 동영상 파문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하면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 한자릿수 이내로 좁혀졌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범위 내로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다”며 대역전극을 자신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체 ARS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 중으로 나타났다”며 초반빙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노동당=진보 정당을 선택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민노당이 원내 진보정당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자돈’을

◇창조한국당=부패·무능 세력 심판을 강조하며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표방한 문국현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김갑수 대변인은 “위장된 진실과 위조된 사실이 속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중심 진짜경제에 다수 국민이 동의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타전하고 구전홍보전을 돌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측은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며 과반 지지를 확신했다. 내부 관세 분석 결과 지난 주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BBK 동영상 공개 이후 미세한 2~3% 조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각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 정보를 입수한 결과 많게는 20% 이상 적게는 15% 이상의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대세는 확정됐으며 다만 과반 지지 확보가 관건일 뿐”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역전극 주장을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08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 main headline reads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Century Listening Device, Stand Firm in the World!). Below the headline, there is a graphic of a large ear-shaped listening device.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ad includes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Korea's Representative Hearing Aid - Century Listening Device) and '승세기소라 - 세기보청기' (Victory Trumpet - Century Listening Device). At the bottom, there are logos for various media outlets and contact information: '1588-8486 / 02-722-0100' and '112-1530 / 9918'.